

바다의 시작, 바다 이야기와 여성

P1

The beginning of the sea,
sea story and women

거친 바다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나아가야 하는 항해자나 어민들은 여러 가지 해상 신앙과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신으로 모시고 그들을 향한 의식을 치렀다. 인류는 바다 여성 신들이 경이로운 바다에 나아가는 자신을 어머니처럼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었다.

한편, 바다에서 여성과 관련된 금기 내용은 정확한 근거 없이 구전돼 온 것들이지만, 아직도 그 관행을 이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금기와 희생 문화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저 무시할 수 없는 지켜야 할 암묵적인 관습이었다.

Fishermen and sailors, who had to sail in the rough seas despite the threat of life, prayed for safety and abundance with various maritime beliefs and deeds. They served supernatural beings as gods and held ceremonies to please them. Human beings believed that the goddesses of the sea were marvelous mothers as well as the guardian angels protecting themselves as they go forward to the sea.

On the other hand, women's taboos regarding the sea have long been passed down by word of mouth without exact grounds, but many still continue with the practice. These taboos and sacrifices were just implicit practices that cannot be ignored for those living on the sea.



문노의 해도
1619년 이탈리아, 양피지, 55.0x98.5



심청전
1947년, 종이, 14.0x20.5



천하도
조선, 종이, 38.0x28.5



산해경
1884년, 종이, 29.0x23.8

관람 안내 Information

전시 장소 Place	2F 기획전시실 2F Special exhibition hall	
관람료 Admission	무료 Free	
관람 시간 Opening	평일 Weekday	9:00~18:00
	주말, 공휴일 Legal holiday	9:00~19:00
휴관일 Closing	매주 월요일 Every monday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	

임시 운영 Temporary operation	평일, 주말 Weekday, Legal holiday	9:00~17:00
	(코로나19로 인한 사전예약 운영 중,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바다 여성

SEA / WOMEN

전시를 열며

Prologue

해양 분야는 여성이 유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연약한 여성이 거친 바다를 버틸 수 없다는 편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도 여성은 바닷가에서 그 삶과 문화를 일구어 나갔고,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강인하였으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발전시켜왔다. 비록 전통사회 여성들은 남성을 도와 바다 주변에 머물러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 여성들은 점차 '금기의 벽'을 허물고 남성과 함께 바다로 나아갔으며, 해양 전문 분야로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 전시는 오래전부터 바다와 함께해 온 여성의 고된 삶을 소개하며, 현재 그들이 꿈꾸었던 도전과 희망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바다와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소개함으로써 부정적인 선입견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The maritime sector was the typical exclusive property of men that women could not approach. It comes from the prejudice that women who are biologically weaker than men cannot endure rough waves.

Nevertheless, women built a life and culture at sea, and also they moved forward with their life without fear of the sea. The women living on the sea are brave and have developed their own lifestyles. Although the women in a traditional society just assisted men staying on the periphery of the sea, modern women have slowly broken a taboo barrier. And they are moving forward to the sea with men. Recently, the entry of women into the sea is prevalent in the maritime sector.

The main goal of this exhibition is to introduce women's life who have spent their whole life with the sea and then to consider what ideal sea for modern women continuing to challenge. The exhibition including changes in perception of women will give an opportunity to take the first step to throw away all negative preconceptions about women and advance to a gender equality society.

P2

바다 노동 속의 삶

The life in maritime labor

전통사회의 어촌 여성들은 직접 배를 타지 못하였을 뿐, 어로에 필요한 그물을 짜거나 어업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해양 노동을 남성과 함께 하였다. 나아가 고기잡이를 나간 남성을 대신하여 마을의 논밭을 도맡았다.

어촌의 금기와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전통사회 여성들은 어업과 관련한 노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여성들은 바다에서의 삶을 일구어 왔으며, 그 삶과 노동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Women in fishing villages in traditional society were not able to board the boat, but they worked with men to squeeze nets for fishing and also cultivate farmland of the village on behalf of men who went fishing.

Despite the fishing village taboos and negative culture, women in traditional society have continued to work in fishing. Women have developed life on the sea, and their life and labor continue to the present.



굴함지와 조새

근대, 나무, 31.0x48.5
조선, 나무 및 금속, 29.0x14.0x5.5

갯지렁이 바구니

현대, 갈선, 29.0x36.0



태왁·망사리

현대, 박 및 섬유, 태왁 53.0



굴 캐는 모습
현대, 15.2x10.3

P3

바다로의 도전

Challenge to the sea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 남성에 비해 그 수가 적긴 하지만, 여성들의 바다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금녀의 벽'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오래된 관습에 얽매어 여성은 할 수 없다는 선입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은 해양 문화사 속에 존재해왔다.

여성들은 그 어느 시기보다 도전적이며,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현대 여성들은 사회와 관습의 벽에 부딪혀 조금 늦어졌을 뿐, 여느 다른 동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다. 선입견의 벽을 허문 여성들은 미래의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Is there anything impossible just for the reason that born as a woman? Although it was fewer cases than men, women's challenge to the sea existed. Because we bound by old customs such as the 'barrier of the forbidden to women' for a long time, we might have highly influenced by prejudice that women cannot achieve anything. However, women have been in the history of maritime culture for a long time ago.

Women are more challenging than any other time and are also entering various sectors. Modern women have only taken a while due to society and customs, but working on equal status with other colleagues. Thanks to the women who have broken down stereotypes and barriers, it gives another opportunity for future women.